

전북교육 투명성·신뢰성 높인다

전북교육청, 오늘 제5기 시민감사관 제2회 협의회... 외부전문가 7명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5일 본청 8층 감사협의회실에서 '제5기 시민감사관 제2회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제

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7명과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0년 하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대상 및 부서별 요구자료 선정, 시민감사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외부전문가 시스템 강화로 전북교육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는 지난 4월 16~29일까지 진

행했다

감사 1반에서는 △전북교육 홍보간행물 발간 유효성에 대한 사항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초등학교 영어교과 해외심화(어학)연수 후 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 감사 2반에서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수학·과학교육의 새로운 교육콘텐츠 SW 개발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24일 캠퍼스 일원에서 카이퍼 서거 10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혁신' 비전 공유

전주대, 카이퍼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진행

전주대학교는 24일 캠퍼스 일원에서 카이퍼 서거 10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한 세계적인 칼뱅주의자로 기독교 세계관을 창시했다. 그는 '절대주권', '영역주권'을 주장하며 기독교 중심의 학문과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의 사상은 1880년 설립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에 그대로 반영됐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대학에도 그의 교육관을 연구하고 있다.

전주대는 그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카이퍼 서거 100주년 특별 기념 예배를 진행했다.

신동아학원 홍정길 이사장은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며,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본받아 전주대와 학생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일어서

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스타카토에서는 '숲속 초막 셋' 준공식이 진행됐다. '숲속 초막 셋'은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로 겸손과 순종, 경건한 삶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카이퍼 서거 100주년 기념전시회 제막식은 오후 4시 대학관 4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미정 작가는 성경구절과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을 주제로 총 10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중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담은 여섯째 날 작품은 세로 2미터, 가로 10미터에 달하는 대형작품으로 전시회가 끝난 후 스타센터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후인 총장은 "카이퍼 서거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의 사상을 본받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의 혁신'이라는 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카이퍼의 영역 주권을 바탕으로 한 학생 적성 중심 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수퍼스타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윤수하 시인 시 일곱 편 'something31' 지 실려

전북대학교 윤수하 시인(국어국문학과 강사)의 시 일곱 편이 일본 문예지 'something31' 한국 여성 시 특집에 소개됐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일본 문예지 『(후네)』에 실린 이후 일본 내 대표 여성 시인 20명의 시를 소개하는 페미니즘 무크지 something에 선정됐다.

윤수하 시인의 시는 '입술이 없는 심장의 소리'에 실린 '통로'의 4편과 '봄'에 실린 '거미여인의 키스'의 1편이다. 일곱 편 시의 번역은 한성례 교수(세종사이버대)가 맡았다.

한 교수는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여성 시를 소개했으며 우리나라 여성 시로는 김승희와 최영미, 나희덕, 유인진, 정갈별, 김선우 등의 시를 소개했고 이번에 도내에서는 최초로 윤수하 시인의 시를 다뤘다.

한편 something지의 출판사 書肆川尻房(시노모리)은 안도현 도중환 이성복, 편혜영 등의 작품을 번역 출판해 왔다. 전북 대학교에 재직 중인 윤수하 시인은 2013년 '치에' 신인상을 시작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에 '봄', 지혜(2015 세종대농도서), 입술이 없는 심장의 소리 천년의 시작, 저서로는 '이상의 시 예술매체를 노닐다' 지식산업사가 있다.



일본문예지 'something31' 지 표지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건우)이 2020년 올해의 대학박물관으로 선정됐다.

전주대 박물관 '올해의 대학박물관상'

역사·문화재와 관련한 탁월한 연구성과 등 인정

전주대 박물관(관장 김건우)이 2020년 올해의 대학박물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 박물관에 따르면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봉사를 진행해 오고, 또 역사, 문화재와 관련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제69회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대학박물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대학박물관상은 전국 대학박물관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회장 안신원)에서 대학박물관의 발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큰 대학박물관 1곳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이다.

전주대 박물관은 전시, 인문학 교육, 큐레이터 교육, 찾아가는 박물관 등의 교육활동과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부안 진서리 요지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14년부터 '길위의 인문학', '학

예·교육인력 지원', '소장품 DB화 사업', '각종 체험 프로그램(인장·에코백·민화부채)', '큐레이터 진로체험 교육', '한국 문화 바로 알기' 등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초·중·고등학교 및 소외계층, 해외 유학생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진행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020년 한국전쟁 70년 특별전 '70년의 기억, 그리고 전쟁이 남긴 아픔 그리고 화해'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박물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창의미술 주제표현 공모' 수상작 전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극복과 응원을 담은 2020 창의미술 주제표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24일~30일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응원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주제로 도내 중·고교 재학생들의 작품 100편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창의미술 주제표현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취소된 2020 전북학생 미술실기대회를 창의미술 주제표현 공

모전이라는 비대면 실기대회 형식으로 전환해 열리는 것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비판·창의적 사고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월 5~3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서는 회화와 디자인 2개 부문 5개 분야에 중등부 269명, 고등부 100명 등 총 369명이 응모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중등부 69명, 고등부 31명 등 총 100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